

칼럼



정기연 전 영암 신북초등학교 교장

만남과 인생의 성공

인생이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의 삶을 말하고 있다. 인생은 만남의 연속되는 환경 속에서 살고 있다. 만남의 대상은 물리적인 자연환경과 만남 인적인 사람과의 만남 지식정보와의 만남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인간의 만남은 기능적으로는 다르더라도 동시에 시공간을 초월해서 지속해서 이루어지면서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 성격이 달라지고 행동이 달라지고 있다.

교육을 인간유기체가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하면서 바람직한 방향으로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라고 정의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바람직한 환경이란 만남의 환경을 말하고 있다. 인간이 태어나서 가장 처음의 만남은 부모 형제이고 가정환경이다.

이 만남의 환경은 어린이의 성격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준다고 한다. 만남의 환경이 어떨냐에 따라서 고정관념이 형성되고 있으며 고착된 고정관념을 나침반으로 삼아 인

생 항로를 운행해 가는 것이다. 부모를 바꿀 수 없으나, 가정을 떠난 인적 환경은 선택사항이다. 어떤 배우자를 택해 결혼하느냐, 어떤 학교에 가느냐, 어떤 직업을 선택하느냐, 어떤 지식정보를 받아들이고 있느냐에 따라 새로운 인생나침반이 형성되고 있다. 인간은 성공하고 싶어 하고 있으며 그것이 인간의 욕구다. 성공이란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으면서 자연환경을 파괴하지 않으면서 자기가 세운 목표를 하나씩 이루어 가는 것을 말하고 있다.

성공하려면 바람직한 만남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만남이 없는 인간은 산송장이다. 만남이란 성공을 향하여 움직이고 있어야 한다. 성공을 위해 자기의 인생 성공목표를 향해 바람직한 만남을 선택해야 한다.

학교에서 같이 공부한 동창들의 만남, 같은 고향 사람들의 만남, 종교 교적 신앙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만남, 지식정보를 공유하는 사람들의 만남 직장에서의 만남 사업을 추진

하기 위한 만남 등 수많은 만남이 있는데 만남에는 부정적인 만남과 긍정적인 만남이 있다.

부정적 만남이란 실패한 인적 물적 환경적 만남이다. 이러한 만남에 빠져 있다면 빨리 빠져나와야 하며 성공적인 만남이란 긍정적 사고를 하며 긍정적 행동을 하는 사람들의 만남이다. 우리는 하루 동안에도 어떠한 만남이 있는데 돌발적인 만남도 있겠지만, 계획적인 만남이 연속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과거는 지나갔는데 과거의 환경에 갇혀 있다면 빠져나와야 하며 과거의 고정관념은 과거와 함께 역사 속에 묻어두고 변화되는 새로운 환경에서 새로운 방향으로 호기심을 가지고 즐거운 만남을 이루면서 성공한 인생을 만들어 가야 한다. 과거의 부정적 사고인 고정관념에 발목 잡혀 있다면 성공의 계단에 올라갈 수 없다.

날로 새로워지는 국제화 시대에 세계는 한집안처럼 변했고 시시각각으로 변하는 지식 정보의 변화를

습득하면서 새로운 생각 젊음의 생각을 하고 살아야 할 것이다. 젊은이 과거의 만남에 벗어나지 못하고 고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성공으로 가는 길의 방향을 잘못 잡은 것이다.

만남에서 부모 형제 같은 자연적 만남은 바꿀 수 없지만, 인위적인 만남은 선택 사항이다. 살다 보면 선택의 갈림길에 서게 되는데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긍정적 사고에서 나온 선택과 부정적 사고 선택에서 나온 선택은 만남을 성공이나 실패의 방향으로 이끌어 간다. 따라서 내가 성공하려면 긍정적 환경과의 만남을 택하고 긍정적 사고를 하는 사람과 만남을 택하고 미래지향적인 새로운 지식 정보를 접하고 자 노력해야 할 것이다.

만남은 직접 만남과 간접 만남이 있다. 직접 만남을 악수하는 만남이라면 간접 만남은 통신수단에 의한 만남과 독서를 통해 시공간을 초월한 만남이 있다. 우리는 누구에게나 하느님께서서는 평등하게 시간을 주셨다.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어떤 만남이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지고 있다.

결과의 평준화를 하느님께서서는 주지 않고 성공자와 실패자 부자와 가난뱅이로 구분하셨다. 만남의 선택이 바로 나의 성공 나침반이다. 긍정적 생각과 만남으로 성공자로써 인생을 풍요롭게 살았으면 한다.

기고

속도를 줄이면 사람이 보인다  
안전속도 50·30

현재 코로나19 감염병 등으로 인하여 대중교통 이용이 현저하게 줄어들면서 자가용으로 이동하는 비율이 높아짐에 따라 자동차 관련 사고가 증가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심각한 것은 도로에서 과속주행이다. 그리하여 2021. 3. 21. 서울지역을 시작으로 같은 해 오는 17일부터 전국 도심지역의 차량 속도가 시속 50Km로 제한되며,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30Km로 제한되는 안전속도 50·30(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9조 1항)을 시행을 앞두고 있다.

안전속도 50·30중 50은 안전을 위해 주거지역과 상업지역, 그리고 공업지역 내 모든 일반도로에서 최고 속도를 50Km로 제한하는 것을 뜻하고, 30은 차도와 보도가 명확히 구분되지 않은 주택가와 도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등 이면도로에서는 30Km로 속도를 제한하는 것을 뜻한다.

2019년 한국교통안전공단에 따르면 우리나라 보행자 사망비율은 39.7%로 OECD 회원국 평균 19.7%에 비해 2배가 넘기 때문에 보행자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해 안전속도 50·30을 시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법 시행으로 인하여 일부에서는 우려가 시선도 나오고 있다.

그 중 가장 우려가 된 부분은 현재 일반도로의 기준은 60Km에서 50Km로 변경으로 인하여 교통체증이 생길 수도 있다는 점을 문제점으로 보았다. 하지만 주행 시간이 늘어나는 주원인은 신호등에 걸리는 시간과 주행 차로의 선택으로 나타났고, 제한속도 하향으로 인하여 생기는 주행시간 소요 증가는 10Km 평균 2분 정도의 미세한 차이로 나타났다.

도로교통법이 개정되면서 속도 위반 시 범칙금 및 과태료 부과기준도 변경되어 해당하는 속도를 위반하게 되면 위반 정도에 따라 4만원에서 최고 13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되며, 80Km 이상 초과속 운전자는 벌금 및 형사처벌까지도 부과될 수 있다.

안전속도 50·30으로 시행으로 인하여 운전자들은 속도제한에 대한 부담감을 커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법을 지킴으로 나와 내 가족까지도 교통사고로부터 지금보다 안전해 질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겠다.

김민규/전남청계기동대경장

독자 참여를 기다립니다

E-mail : ihonam@naver.com  
FAX : (062) 222-5547

독자마당은 본지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아동학대, 지켜보지 말고 관심으로 지켜주세요

아동이 독립된 주체로서 행복하고 안전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1989년 아동의 생존·발달·보호·참여에 관한 기본권리를 명시한 유엔 아동권리 협약이 채택되어 사회적 관심이 날이 높아지고 있음에도 16개월 입양아 사망사건처럼 잇따라 발생하면 새로운 아동학대 사건이 터지고, 그 진상이 언론에 보도되면 피해자는 물론이고 전 국민의 마음속에 생채기가 남는 등 아직도 우리 사회에 아동학대 사각지대가 존

재함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2019년 아동학대 발생 건수는 3만여 건으로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고, 특히 아동학대는 친부모가 학대 행위자인 비율이 75%를 넘어서다 보니 아이들 스스로 신고하는 것이 어려운 뿐 아니라, 주변에서 관심을 가지고 신고하는 것이 과한 관심으로 비칠 수 있어 더욱 신고가 어렵게 느껴지는 등 아동학대를 발견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사람이 만든 시스템의 허

점을 메워나갈 수 있는 것은 사람의 관심이기때문에 계절에 맞지 않는 옷, 겨드랑이·팔 안쪽 등 다치기 어려운 부위 상처를 발견, 이웃에서 지속적인 아이 울음소리가 비명소리, 생김새가 다른 명자국 등이 보일 때는 합리적 의심! 이 상황만으로 누구든지 112나 아이지킴이112(어플)를 활용하여 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관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입니다. 오늘의 피해자는 내일의 가해자

가 된다고 합니다. 물론 내일을 맞지 못하는 경우는 허다합니다.

양형기준과 처벌 법령의 강화, 아동 돌보는 사회적 시스템의 지속적 개선이 되어 가고 있는 부분은 긍정적인 측면이나 나날이 진화하는 범죄에 비해 우리 사회가 얼마나 나아지고 있는가에 대한 의구심이 존재하기에 어른의 시선, 그리고 아이들의 시선에서 끊임 없이 주변을 살피야 하고 손을 내밀어야 합니다.

어른의 관심만이 아이를 구할 수 있습니다. 지켜보지 말고 지켜주세요. 장은주/순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경사

생활정보전화	긴급전화
▲이주여성긴급전화 1577-1366	▲기상예보 131
▲응급질병상담 1399	▲법률구조상담 132
▲미아·가출인신고 182	▲광주남성의전화 673-9001
▲여성 긴급전화 1366	▲광주 여성의전화 363-7739
▲청소년상담지원센터 1388	▲인광알코올 상담센터 222-5666

호남신문 www.i-honam.com 대표전화 (062) 229-6000  
광주서구 운천로 213 스카이랜드 309호

회장·발행인·편집인 김 평 호	편집국장 직무대리 서 선 옥
동부취재본부 전남 순천시 충효로 63 가동 2호	TEL (061) 905-2011 FAX (061) 905-2012
서울취재본부 서울시 노원구 공릉로 62가길 16-1	TEL (02) 2238-0003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직통 (062) 228-2580 FAX (062) 222-5547	

등록번호 광주가 00021 (일간) / 1946년 4월 창간 / 구독료 월 10,000원 1부 500원 인 체 (주)남도프린테크  
본지는 신문 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합니다.

호남신문 후원 및 회원제 시행합니다

결코 쉽지 않은 길이지만 저희가 개척하겠습니다. 지금보다 건전해질 수만 있다면 어렵지만 마다하지 않겠습니다. 외부로부터의 어떠한 압력이나 간섭에서도 자유롭기 위해서라면 당장의 손익에 급급해 하지 않겠습니다.

호남신문의 후원 및 회원제를 시행합니다. 액수의 많고 적음을 떠나 회원 여러분의 피와 땀이 배인 후원금을 소중히 접수하겠습니다. 후원금으로 광고의 일부를 대체해 광고주의 유행형 압력 등 편집권 침해로부터 탈피해 자유로운 제작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할 것 입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및 회원제의 시행으로 애국되지 않은 정론을 펼치는데 지역언론의 선봉장 역할을 자임합니다.

전국 일간지 최초로 복지면을 할애해 사회적 약자와 취약계층의 권익향상에 힘쓰고 있는 호남신문은 후원회원제를 통해 보다 더 굳건하게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당장 눈에 띄는 획기적인 성과를 기대하겠습니까마는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다보면 작은 내가 모여서 강을 이루듯 우리가 지향하는 목표점에 다다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호남신문은 후원 회원들의 자발적 후원으로 운영되는 시스템을 차차 정착시켜 나갈 것입니다. 호남신문의 작지만 큰 변화의 몸부림에 시도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동참을 기대합니다.

